

## 順天 住巖面 樓亭攷\*

김 현 진\*\*

### 차 례

1. 머리말
2. 주암지역의 특색과 누정 개관
  - 2.1. 주암지역의 특색
  - 2.2. 누정 개관
3. 주암지역 누정의 역할과 의미
  - 3.1. 睦族崇祖 의식처
  - 3.2. 共同善 지향처
  - 3.3. 儒賢의 志趣 추향처
  - 3.4. 仙界 인식처
4. 결론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順天읍성 외곽에 해당하는 住巖지역의 특색과 그곳 누정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住巖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家門 중심으로 번성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문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주암지역에는 순천지역 私設 누정으로는 최초로 해당하는 相好亭을 비롯해 모두 10개의 누정이 건립되었다. 순천읍성 외곽지역으로는 그 수가 가장 많다. 이들 누정의 주인을 개괄해보면 60%가 옥천조씨 가문에 속하고, 또 향약재처럼 趙氏·鄭氏·李氏·許氏 등의 공동인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가문 중심의 발전이라는 주암지역의 특색을 반증한다.

그래서 주암지역 누정에는 가문의 명성 계승과 우애 도모를 염원하는 睦族崇祖 의식처, 鄉約을 통한 향리의 善俗을 추구하는 共同善 지향처, 선현처럼 산수지락과 물아일체 및 군자 추구 등의 흥취를 담은 儒賢의 志趣 추향처, 주암의 아름다운 산수로 말미암은 仙界 인식처 등의 역할과 의미를 드러낸다. 특히 선계 인식처는 小江南과 仙鄉으로 대표되는 순천지역의 정체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심어** : 順天, 住巖, 樓亭, 睦族崇祖, 共同善, 儒賢志趣, 仙界, 玉川趙氏, 仙鄉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167)

\*\* 경상대학교

## 1. 머리말

순천지역은 예로부터 小江南과 仙鄉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순천지역은 三山二水의 자연환경과 고호가 중국 南京을 비롯한 杭州·徐州 등 이른바 江南지역과 유사한 점으로 인해 소강남으로 일컬어졌다. 또 신선과 관련해 仙巖寺 사찰의 명칭 유래와 昇仙橋·降仙樓 등의 부속 건물 이름, 仙鶴·蓬萊山 등의 지명, 그리고 방장산[지리산]과 영주[高興] 또는 영주산[한라산] 사이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에 따라 순천은 선향으로 여겨졌다.<sup>1)</sup>

순천읍성 외곽에 해당하는 住巖지역은 백제시대 때 欲乃郡 遁支縣이었고, 신라 景德王 때인 757년 谷城郡 富有縣으로 개명하였다. 고려 초인 1036년 昇平郡 부유현이 되었고, 1310년 順天府 부유현이 되었으며, 1413년 順天都護府 부유현이 되었다. 1598년 부유현은 순천도호부의 직촌이 되었고, 이후 住巖이란 지명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sup>2)</sup>

주암지역은 五聖山·雲月山·母后山·峨眉山 등이 있고, 그 중앙은 넓은 분지를 이루며, 그 사이로 寶城江을 비롯한 지류인 謙川·廣川 등이 흘러 산수가 아름답다. 또한 이곳은 이름난 趙氏·鄭氏·柳氏 가문 등이 번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玉川趙氏 가문은 忠孝家の 명성을 드날리며 세거하였다. 이로 인해 주암지역은 가문을 중심으로 번성한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문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주암지역에는 15세기 말에 건립되어 순천지역 최초 사설 누정에 해당하는 相好亭을 시작으로, 1896년에 건립된 蓮塘齋에 이르기까지 모두 10개의 누정이 건립되었다. 순천지역 전체에서 읍성 외곽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누정이 건립된 곳이다.

주암지역 누정에 대한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순천지역 누정별 간략 설명 및 記文과 題詠詩 원문을 정리한 것,<sup>3)</sup> 호남

1) 金炫鎭, 「順天地域 樓亭 題詠詩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10~20쪽.

2) 順天市住岩面史編纂委員會, 「住岩面史」, 순천아름원색, 2009, 184쪽.

3) 金東洙 編, 「樓亭關係 資料 : 一. 順天·昇州地域」, 『湖南文化研究』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문

누정의 창건자·건립시기·위치·현존유무에 대한 개략을 설명한 것<sup>4)</sup>, 순천부읍지 『新增昇平誌并續誌』(1924년 순천향교 간행)의 누정 제영시를 수록 순서대로 번역한 것<sup>5)</sup> 순천지역별 각 누정의 소재지와 간략 내력 및 건축형태를 설명하고 기문과 제영시 일부의 원문과 번역을 수록한 것이 있다.<sup>6)</sup> 또 주암면의 相好亭과 漾碧亭, 송광면의 超然亭, 황전면의 晚樂亭, 승주읍의 湛翁亭 등 순천지역 곳곳의 玉川趙氏 문중 누정의 의미가 문중 결속과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門閤 기능에 있음을 밝힌 것이 있다.<sup>7)</sup> 그리고 양벽정에 대한 명칭 유래와 의미 및 제영시 양상을 밝힌 것이 있다.<sup>8)</sup>

본고는 현 순천시 주암지역의 특색을 밝히고, 그곳에 소재하거나 소재했던 누정의 역할과 의미 및 순천지역 정체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암지역의 특색과 누정 개관

### 2.1. 주암지역의 특색

주암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趙顯範(1716-1790)은 1784년 『江南樂府』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현존 유일의 地方史詩集이고, 관청에서 편찬한 순천읍지에서 볼 수 없는 史料가 풍부하며, 조선 후기 社會史연구에 도움 되는 자료가 수록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9)</sup> 그 책의 「富有行」에서 조현범은 고향 주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연구소, 1896.

4) 湖南漢文古典研究室 編, 『湖南樓亭 基礎目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5.

5) 陳仁鎬·許權 역해, 『順天옛詩』, 순천문화원, 2000.

6) 金인호·남호현 역해, 『순천樓亭』, 순천문화원, 2007.

7) 鄭淸柱, 「朝鮮後期 全南地域 土族의 樓亭 建立-樓亭의 門閤 機能」, 『湖南文化研究』 제24집, 1996.

8) 金炫鎭, 「順天地域 樓亭 題詠詩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9) 順天大南道文化研究所 역주, 『국역 江南樂府』, 순천문화원, 2005, 291~292쪽.

부유는 오래된 고을로	富有古之縣
백제 신라 이전부터 있었네	設自羅濟前
북쪽을 지탱하는 아미산을 접하고	撐北接峨眉
서쪽으로 흐르는 광천을 이었네	控西連廣川
나라는 번갈아 교대하였고	天道有迭代
인사는 절로 변천하였네	人事自變遷
옥인이 터를 세우기 시작했고	玉人肇建基
자손들은 선조의 유업을 보전하네	雲仍保青氈
이름난 가문은 趙氏·鄭氏·柳氏이고	名家實三姓
절의의 행실은 곧 여덟 현인이네	節行更八賢
좋은 경치 더욱 변화하고 성대하니	物華轉繁盛
아름다움이 우리나라에 으뜸이네	佳麗擅東天 <sup>10)</sup>

주암지역은 동쪽으로는 兄弟山·西峙山·五聖山이 있고, 서쪽으로는 雲月山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시루산·옥녀산을 비롯한 가장 높은 母后山[일명 無愁山·蘿蔔山]이 있고, 북쪽으로는 峨眉山·九山이 있고, 동남으로는 曹溪山이 둘러 있다. 그 중앙은 넓은 분지를 이루는데, 그 사이로 寶城江을 비롯한 지류인 謙川·廣川 등이 흐른다.<sup>11)</sup>

조현범이 위 악부사에서 언급한 아미산(峨眉山)과 광천(廣川)은 바로 주암지역의 산수를 포괄한 것이다. 이러한 주암지역의 산수에 대해 重峯 趙憲(1544-1592)은 “광천의 산수가 강남에서 뻗어나다.[廣川山水勝江南]”<sup>12)</sup>라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강남’은 小江南, 즉 중국 揚子江 이남 지역 풍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순천을 가리킨다. 조현의 저 구절은 주암의 산수가 순천 중에서도 더욱 수려한 곳이라 말하는 것이다.

10) 趙顯範, 『江南樂府』 「富有行」. “富有古之縣, 設自羅濟前. 撐北接峨眉, 控西連廣川. 天道有迭代, 人事自變遷. 玉人肇建基, 雲仍保青氈. 名家實三姓, 節行更八賢. 物華轉繁盛, 佳麗擅東天. 時丁赤鷄間, 天將賴萬全. 風土畫有聲, 淑美至今傳.”

11) 順天市住岩面史編纂委員會, 『住岩面史』, 순천아름원색, 2009, 85쪽~95쪽.

12) 奇宇萬, 『松沙集』 卷39, 「三灘趙公墓誌銘并序」. “重峯題公溪碧亭曰, 廣川山水勝江南.”

許永 編,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趙憲 撰, 『溪碧亭次韻』 제1구에는 “廣清山水勝江南”.

한편 위 시에서 말한 玉人是 옥천조씨 순천 입향조 趙瑜(1346-1428)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俞玉, 호는 度谷, 본관은 玉川이다. 부친은 고려 때 檢校門下侍中을 지낸 趙元吉로 말년에 전라도 淳昌에 은거하여 牧隱·圃隱 등과 五隱으로 일컬어졌다. 조유는 고려 때 中顯大夫 典農寺副正을 지냈다. 고려가 망하자 不事二君과 罔僕之義를 내세우며 두문동에 들어갔다가 현 전라북도 淳昌郡 유등면 건곡에 은거하며 출사하지 않았다. 또 효성이 지극하여 당시 100일 만에 탈상하는 풍조를 거부하고 모친과 부친과 계모의 상을 삼년상으로 치렀다. 이처럼 충효의 모범을 보인 조유에 대해 世宗은 정려와 함께 御製詩를 하사하였다.<sup>13)</sup> 조유는 말년에 순창에서 다시 순천 부유현 謙川 가, 즉 현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로 이거하여 은거하다 생을 마쳤다. 그래서 고려 말 진사 朴綬가 조유의 집을 지나가며 “일찍이 금오산 밑 吉再 집에 인사했는데, 남쪽 고을에 이제 옥인이 산다고 하네.[曾次金烏山下閣, 南鄉今聞玉人居.]”<sup>14)</sup>라고 하였다. ‘八賢’은 조유의 차남 趙崇文, 그리고 조승문의 아들 趙哲山, 趙智山·趙智崑(1430-1495)·趙智崙(1436-1503)·趙智崗(?-1507) 4형제 및 무과로 발신하여 을미와변(1555) 때 승첩을 거둔 鄭承復(1520-1580)과 임진왜란 때 義를 떨친 정승복의 아들 鄭愼(1566-1640)을 가리킨다.<sup>15)</sup> 이를 보면 주암지역은 趙氏·鄭氏 등으로 대표되는 충효와 절의의 가문이 융성한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현범은 「부유행」 詩序에서 주암지역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건곡 선생 휘 유(瑜)는 옥천부원군 조원길(趙元吉)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벼슬하였는데 관직은 부정(副正)에 이르렀다. 조선 태조가 임금이 된 후, 건곡 선생은 벼슬에서 물러나 순창(淳昌) 건곡리(度谷里)에 살다가 만년에 순천 부유현으로 이거하였다. 그 뒤로부터 부유현은 점점 번성하여 5개 고을이 있게 되었는데, 첫째는 연정(蓮

13) 세종의 어제시는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所 編(1986),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卷之一』의 「度谷先生遺事」 말미에 실려 있다.

14)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所 編,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卷之一』, 「度谷先生遺事」.

15) 趙顯範, 『江南樂府』 「富有行」 小註. “度谷先生之第二子諱崇文與子哲山, 景泰六年丙子同被六臣之禍, 先生之孫智山智崙智崑智崗四人. …… 鄭判官承復 …… 乙未之變, 大捷楸子島. 其孫愼, 壬辰之變, 奮義勤王, 特授奉事.”

亭), 둘째는 여의방(如意坊), 셋째는 청향정(清香亭), 넷째는 귀두정(龜頭亭), 다섯째는 둔기동(屯基洞)이다. 고을에는 모두 12개의 큰 가문이 있는데, 조씨(趙氏) 가문이 성대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정씨(鄭氏) 가문과 유씨(柳氏) 가문이 또한 이름난 성씨가 되었다.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인물이 풍부하고 화려하여 순천부 제일의 고을이 되었다.<sup>16)</sup>

주암지역의 번성 계기가 조유의 은거에 있고, 12개의 가문 가운데 옥천조씨 가문이 가장 성대하였으며, 뒤이어 정씨와 유씨 가문도 저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천조씨의 경우 조유의 은거 이후 500년이 넘는 지금도 주암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고 있다. 「부유행」과 그 서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암지역은 가문을 중심으로 발전한 곳이라 하겠다.

요컨대 주암지역은 모후산·아미산 및 보성강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산수 속에 玉川趙氏를 비롯한 鄭氏·柳氏 등 가문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을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 2.2 누정 개관

1924년 순천향교에서 간행한 『新增昇平誌并續誌』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하되, 누정의 기능을 수행하다 후대에 齋室로 변모한 것은 논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주암지역 누정을 건립 시대순을 중심으로 하되, 건립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趙顯範, 『江南樂府』 「富有行」 詩序 補註. “度谷先生諱瑜, 玉川府院君諱元吉之子也. 仕麗季, 官至副正. 我聖朝受禪之後, 退居淳昌度谷里, 晚年卜居于富有. 自其後富有, 漸爲繁盛, 有五洞內 一日蓮亭, 二日如意坊, 三日清香亭, 四日龜頭亭, 五日屯基洞. 洞有十二都大門, 趙氏之盛. 始此鄭氏柳氏, 亦以著姓居. 至累世, 人物富麗, 爲本府第一村.”

표면	누정명	건립연도	누정주인	기문(저자)	제영시명(저자)/수	누정위치	현존여부	비고
1	相好亭	1400년도 후반	趙智山 趙智崑 趙智崑 趙智崗	相好亭重修記(張經世)	相好亭(曹偉)/1	죽림리 죽림마을	○	趙瑜의 손자
				相好亭重修記(洪樂命)	次韻(趙時一)/1			
				相好亭重修記(奇正鎮)	次韻(趙命臣)/1			
				相好亭重修記(趙敏植)	次韻(張經世)/3			
				相好亭重修記(趙驥鉉)	次韻(安琛)/1			
				重修後敬次遺稿(趙崇夏)	次韻(徐有慶)/1			
					次韻(崔益鉉)/1			
					次韻(李瑀)/1			
					次韻(9세손 趙命臣)/1			
					次韻(金地粹)/1			
					次韻(金載栢)/1			
					敬次板上韻(宋秉璿)/1			
					謹次(徐有寧)/1			
					謹次板上韻(趙昌駿)/1			
					謹次板上韻(趙文植)/1			
					謹次板上韻(趙德浩)/1			
					敬次板上韻(趙鎮溥)/1			
					敬次板上韻(趙泰命)/1			
					敬次板上韻(趙時壽)/1			
					敬次相好亭板上舊韻 勸示諸宗并序(趙經孝)/2			
	謹次相好亭壁上韻 (安壽祿)/1							
	謹次相好亭韻(宋秉珣)/1							
	議重建相好亭敬次舊揭 板上韻示宗老渭叟昂之 (趙彥臣)/2							
2	漾碧亭	1545년 이후	趙大春	漾碧亭遺墟記(趙鍾惠)	漾碧亭(趙大春)/1	궁각리 매우마을	○	趙瑜의 5대손
				漾碧亭重修記(金容珣)	漾碧亭(金麟厚)/1			
				漾碧亭先亭重建事實記 (趙致洙)	漾碧亭次韻(鄭澈)/1			
					漾碧亭次韻(趙憲)/1			
					漾碧亭(末益勉)/1			
					漾碧亭次韻(金容珣)/1			
					漾碧亭次韻(趙鍾惠)/1			
					漾碧亭次韻(趙泳薰)/1			
					漾碧亭次韻(趙學洙)/1			

표 번호	누정명	건립연도	누정주인	기문(저자)	제형시명(저자)/首	누정위치	현존여부	비고						
3	詠歸堂	1700년대 초기추정	趙泰望	詠歸堂重建記(奇宇萬)	詠歸亭韻(金在魯)/1	궁각리 마전마을 영귀동네	×	趙大春 6대손						
					次韻(趙彥臣)/1									
					次韻(崔益鉉)/1									
					次韻(徐正淳)/1									
					次韻(安鍾惠)/1									
4	晚覺齋 [亭]	1700년대 후반추정	許 傑	晚覺齋記(李宗秉) 晚覺齋記(尹審求)	晚覺齋原韻(許傑)/1	궁각리	×	1735년 무과 급제						
					晚覺齋次韻(李宗秉)/1									
					晚覺齋次韻(許傳)/1									
5	鄉約齋	1796년	趙晉淳 鄭煥奎 李尙燁 趙聖淳 趙碩根 許 昱 趙命溥 趙復淳 趙正溥 李重休 趙相永	鄉約齋創建記(申錫禧) 昇平住巖鄉約齋舍記 (安壽祿)	×	한국리 약촌마을	○							
			6	1841년	趙鎭龍				湛樂齋記(崔永祚)	湛樂齋原韻(趙鎭翼)/1	구산리 구산마을	○		
										湛樂齋次韻(趙鎭龍)/1				
										次趙氏湛樂齋韻 (奇正鎭)/1				
										湛樂齋次韻(柳儀鎭)/1				
			7	三松亭	1882년				柳必茂	三松亭記(柳必茂)	×	창촌리 천평	×	
			8	蓮塘齋	1896				趙性汝	蓮塘齋記(宋秉珣)	蓮塘齋韻(趙炳休)	광천리 한동마을	×	
			9	花亭	1800년대 중반추정				趙應臣	×	×	광천리	×	1890년 旌閭 받음
			10	湖隱亭	?				金相秀	×	「湖隱亭」(金相秀)/1	죽림리 호암마을	×	



주암지역은 상호정을 비롯해 모두 10개의 私設 누정이 있는데, 순천읍성 외곽지역 중에서 가장 수가 많다.<sup>17)</sup> 그렇지만 현존하는 누정은 상호정·양벽정·담락재·향약재 등 4개뿐이다. 향약재를 제외한 3개 누정은 모두 옥천조씨 문중에 속한다. 지금까지 그 누정이 존속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조유·조승문·조철산 3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유림의 공의로 1711년에 건립된 謙川書院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겸천서원은 현 주암면 죽림리에 있으며,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20년 복건하였고, 이후 몇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까지 유림에서 향사를 지내고 있다. 즉 옥천조씨 후손들이 선조의 누정을 존속시켜 온 배경은 유림으로부터 제향 받는 선조가 있는 가문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報本追遠의 도리를 다하고 문중을 결속하는 한 방편으로 여긴 것에 있다고 하겠다.

누정 건립 시기를 보면 15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상호정은 순천지역을 통틀어 私設 누정으로는 최초이고, 건립년도 순으로 보면 2번째에 해당한다.<sup>18)</sup> 집중 건립 시기는 전체 누정의 70%가 속한 18세기~19세기이다.

누정 주인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옥천조씨 문중 인물이 많다는 점이다. 상호정·양벽정·영귀정·담락재·연당재·화정 등 전체의 60%가 옥천조씨 문중에 속하고, 제영시 작품수 또한 옥천조씨 문중의 누정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sup>19)</sup> 이 점은 전남지역에서 화순과 장흥을 비롯해 단일 문중 중심의 누정 발달 일례가 된다.<sup>20)</sup> 둘째는 향약재처럼 趙氏·鄭氏·李氏·許氏 등의 제현들이 공동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가문 중심의 누정 발전이라

17) 金炫鎭, 「順天地域 樓亭 題詠詩 研究」, 慶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8, 5쪽~7쪽에 의하면, 순천 읍성 외곽 지역의 경우 주암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黃田面으로 5개의 누정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2~1개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18) 金炫鎭, 「順天地域 樓亭 題詠詩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에 의하면, 순천 지역 최초 누정은 官設 누정으로 고려시대 때 건립된 燕子樓이다. 私設 누정은 상호정이 최초이고, 다음은 1502년 曹偉가 축조한 臨淸臺이다.

19) 주암지역 인근의 옥천조씨 문중의 누정으로 松光面에는 조승문의 7대손 趙濟亨의 은거지였던 超然亭이 있고, 昇州邑에는 趙泳默의 湛翁亭이 있으며, 黃田面에는 趙維元(1638-1708)의 晚樂亭 등이 있다.

20) 鄭淸柱, 「朝鮮後期 全南地域 士族의 樓亭 建立-樓亭의 門閤 機能」, 『호남문화연구』 제24집, 1996에 의하면, 전남지역 단일 문중 중심의 누정 발달 사례로 세 곳을 거론한다. 순천의 경우는 玉川趙氏 문중의 상호정·영모재·초연정·양벽정·만락정·담흡정을 언급하고, 화순의 경우는 文化柳氏 문중의 環山亭을 거론하며, 장흥의 경우는 映湖亭을 사례로 들었다.

는 주암지역의 특색을 반증한다.

### 3. 주암지역 누정의 역할과 의미

#### 3.1. 睦族崇祖 의식처

相好亭은 주암면 죽림리 죽림마을에 있으며, 조유의 손자이자 趙斯文의 아들인 조지산·조지곤·조지륜·조지강 4형제가 지은 누정이다.<sup>21)</sup> 상호정의 ‘相好’는 『시경』 소아 「斯干」의 “질편히 흐르는 물가요, 그윽한 남산이로다. 대나무가 수북한 듯하고, 소나무가 무성한 듯하도다. 형과 아우 다 모여서, 서로 잔 권하며 좋아하고, 서로 판마음 없으리로다.[秩秩斯干 幽幽南山 如竹苞矣 如松茂矣 兄及弟矣 式相好矣 無相猶矣]”라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sup>22)</sup> 이는 새로 지은 집의 낙성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그 집의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잘 살기를 축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부연하여 張經世는 「상호정중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형제 넷이 무고하고 사는 곳을 연결하여 조석으로 서로 마주하며 화락하고 친애하는데, 큰 이불과 긴 베개는 姜肱의 우애보다 더욱 돈독하고 의복을 함께 입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司馬의 부인 말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꽃피는 봄, 달 밝은 가을, 비오는 여름, 눈 내리는 겨울에도 형이 부르면 동생이 따라 한 동이 술을 가지고 정자에 올라 음악을 연주하며 술잔을 주고받았다. 사계절의 경치는 달라지지만 형제의 지극한 즐거움은 끝이 없었다. 박태기나무도 꽃을 피우

21)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所 編(1986),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卷之一』, 趙驥撰 「相好亭重修記」에 “相好亭, 昔在正德成化間, 惟吾家僉樞縣監察訪叅判四昆李府君, 休官藏修之所.”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正德은 명나라 武宗의 연호로, 1506~1521까지 사용되었다. 成化는 명나라 憲宗의 연호로, 1465~1487까지 사용되었다. 이를 4형제의 생몰년과 대략 비교해보면 성화 연간이 더 타당한 듯하다. 성화는 조선시대로 보면 1400년대 후반 成宗 재위기간에 속한다.

22)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所 編(1986),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卷之二』, 張經世撰 「相好亭重修記」. “斯干詩之語, 以相好揭號.”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所 編(1986),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卷之一』, 洪樂命撰, 「相好亭記」. “僉樞公兄第四人, 同居順天兼川之上, 友愛甚焉. 名其燕遊之亭曰相好, 蓋取斯干詩語也.”

고 대나무도 그늘을 드리운다. 뿌리를 같이하고 가지를 이은 즐거움은 꽃과 대나무도 누리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sup>23)</sup>

장정세는 조지산·조지근·조지륜·조지강 4형제가 상호정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화락하게 지내는 것이 後漢 때 두 아우와 우애로웠던 강평보다 더 돈독하였다고 칭송하고, 또 변하는 사계절 풍광과 끝없는 형제의 즐거움을 대조함으로써 우애의 깊이를 강조한다. 그리고 형제간의 재산분배 때문에 3등분되어 말라 죽었다가 그들이 참회하자 되살아난 박태기나무[荊樹] 및 궁궐 太液池 언덕의 뿌리를 같이해 뻗뻗이 자라고 있는 대나무[義竹]로 왕족들을 경계시킨 唐 玄宗 등의 고사를 통해, 반대로 형제의 우애가 돈독하지 못한 경우의 예를 들었다. 그리하여 사물조차도 同根하고 連枝하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사람이 되어서 어찌 그처럼 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런 점을 실천한 조지산 등 4형제의 상호정은 유흥상경의 공간적 기능뿐만 아니라, 친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자는 睦族崇祖 도모의 장이었다.

梅溪 曹偉(1454-1503)는 1500년 5월 7일 평안도 義州에서 순천으로 이배 와서 1503년 11월 26일 병사하였다. 이 시기에 상호정을 방문한 그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 정자만 병화 속에 남아 있어	玆字獨存兵火中
오늘 올라보니 생각이 끝없네	登臨此日意無窮
해거름에 피는 연기 마을마다 가득하고	烟生薄暮千村合
들판에 불어난 물은 두 줄기를 합치네	潦積平郊二水同
익지 않은 가을 귤은 채석강의 달이요	不爛秋柑采石月
가없는 춘흥은 무우의 바람이네	無邊春興舞雩風
산천의 경물은 온통 예와 같으니	湖山景物渾依舊
집안 명성 실추 않도록 내내 힘쓰시오	莫墜家聲勗始終 <sup>24)</sup>

23) 張經世 撰, 「相好亭重修記」. “尤可幸者 孔懷兄弟 四箇無故 接屋連塙 昕夕相對 融融然和樂 切切焉親愛 大衾長枕 姜肱之友愛彌篤 同衣同食 司馬之婦言不入. 至於春花秋月夏雨冬雪 兄呼弟隨 一尊登亭 絲竹鏗轟 觥籌交錯 四時之景致不同 一氣之至樂無窮 紫荊發花 義竹成陰 同根連枝之樂 花竹猶然 而況於人乎?”

이는 상호정 제영시 가운데 최초의 작품이다. 시어 千村습과 二水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한 것이지만, 相好라는 정자명처럼 형제들의 습同을 바라는 마음을 그 이면에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 依舊는 변치 않는 산천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충효의 유혼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형제간의 우애가 변함없어야 한다는 가문 전통의 연속성을 내재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병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상호정에 오른 매계는 입학조 조유로부터 전하는 옥천조씨 가문의 충효를 염두에 두고서, 후손들이 선조의 아름다운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매사에 늘 효우에 힘쓰기를 독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湛樂齋를 보자. ‘담락은 『詩經』 小雅 「常棣」에 “처자 간에 좋고 화합함이, 금슬을 타는 것 같도다. 형제간이 서로 화합하여야만, 화락하고도 즐거우리라.[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既翕 和樂且湛]”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즉 금슬을 연주하듯 처자 간에 정이 좋고 뜻이 맞을 지라도 형제간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없다는 뜻으로, 趙鎭龍이 그의 형 趙鎭翼과 함께 기거하며 우애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崔永祚는 「담락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의 평소 지향은 일상생활의 편안함 및 높은 산과 흐르는 강물을 보고 즐기는 데 있지 않았다. 오직 형과 아우가 베개와 이불을 함께 하고 나팔과 피리를 번갈아 부는 것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잘 지낼 계획을 삼아, 세상의 영욕과 부침을 龜湖 가에서 서로 잊고자 하였을 뿐이다.<sup>24)</sup>

최영조는 崔益鉉(1833-1906)의 아들이다. 그는 담락재가 유흥상경이란 누정 본연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다 『시경』 「何人斯」에서 말한 “壘簾唱和”를 지향하며 영욕을 잊고자 한 조진룡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담락재 또한 우애 도모의 공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蘆沙 奇正鎭(1798-1879)은 「담락재

24) 許永 篇,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曹偉 撰, 「相好亭」. 참고로 『梅溪集』에는 이 시가 실려 있지 않다.

25) 崔永祚 撰, 「湛樂齋記」. “公之素志 則不在乎起居之便穩 流峙之觀玩 惟以兄及弟矣 枕被與共 壘簾唱和 爲終老相好之計 而人間榮辱升沈 欲其相忘於湖外也.”

차운」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효우의 가풍을 이은 사람 있어서	孝友家風續有人
아름다운 명성에 병든 몸 귀 기울였네	芳聲傾耳病昏身
이 분은 침상 마주하는 약속 저버리기 어려워	此生難負對牀約
늙어서 한 이불 덮는 천륜을 어떻게 보전했을까	垂老誰全共被倫
아플 때 나와 친밀한 관계를 생각함이 최선이니	最是疼苛思切己
하물며 숨과 기운이 통한 형제간임에랴	況伊喘息氣通親
주암 겸천 가에 집 짓고 다른 일 없으니	巖泉結構無餘事
상체편 속에 중일 봄날이네	常棣篇中鎮日春 <sup>26)</sup>

對牀約은 송나라 蘇軾·蘇轍 형제와 관련된 고사에서 나왔다. 소철은 형 소식과 공부하며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다가 벼슬하면서부터는 함께 있는 날이 적었다. 당시 韋應物이 「示全眞元常」에서 “어찌 알겠나 비바람 치는 밤에, 다시 침상 마주하고 잘 줄음.[那知風雨夜 復此對牀眠]”이라고 하였다. 이를 본 소철은 일찍 벼슬 버리고 한가로이 지내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고 형 소식과 약속한 일이 있다. 共被倫은 후한 때 姜肱이 두 아우 仲海·季江과 이불을 함께 덮고 잔 데서 나온 말이다. 常棣는 『시경』 소아의 편명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읊은 시이다. 세 가지 고사가 모두 형제의 우애를 가리킨다.

우애로 명성이 자자한 조진익·조진룡 형제의 소문을 들은 노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데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 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것이 바로 혈육과 기운을 나눈 형제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노사는 그들이 주암 겸천 가에 담락재를 짓고 기거하면서 『시경』 「상체」를 읽으며 우애를 다지는 모습이 봄날처럼 화락하다고 여긴다. 이를 보면 노사는 담락재를 우애 도모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암지역에서 번성한 옥천조씨 문중은 집안사람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우애와 화합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를 누정명으로 형상화하였다. 상호정과

26) 許永 篇, 『新增昇平誌及續誌』 昇平續誌四, 奇正鎮 撰, 「湛樂齋次韻」. 참고로 이 시는 『蘆沙集』 권2에 「次趙氏湛樂齋韻」으로 실려 있다.

답락재는 유흥상경의 공간 기능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성 계승과 우애를 도모하는 睦族崇祖 의식처라는 역할 인식도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共同善 지향처

安壽祿이 지은 「昇平住巖鄉約齋舍記」<sup>27)</sup>에 의하면, 향약재는 1796년 주암지역의 趙晉淳·鄭煥奎·李尙燁·趙聖淳 등의 鄉老들이 향약을 개설하고 힘쓰는 데까지 재물을 내고 마음을 모아 창건하고서 講約之所로 삼았다. 그러나 채 3년도 못되어 의견이 나뉘어 향약은 붕괴되었다. 그래서 향약재를 헐어 그 재목을 팔아 자본금 20金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상엽·趙碩根·許昱·趙命溥 등의 제현들은 논의하여 趙復淳을 掌議로 삼고, 수십 년 동안 운영을 맡겼다. 그 결과가 좋아서 강회의 절차와 향약의 조목이 확립되고, 과거를 공부하는 士人들에게 비용을 뒷받침하며 好學을 면려하고 권장하는 풍도가 일어났다. 1830년부터는 趙正溥가 장의를 담당하였다. 여전히 춘추로 강회할 곳이 없었는데, 1850년 李重休·趙正溥·趙相永 등이 발의하여 廣川 상류의 唐川 북쪽, 현 한곡리 약촌마을에 향약재를 중건하고 강당과 창고를 지었다. 그리고 집안의 자손들을 계원으로 넣고, 1책으로 契案을 만들어 상자에 담아 향약재 들보에 매달아 놓았다.

1854년 4월 순천부사로 부임한 申錫禧는 1855년 7월 상순에<sup>28)</sup> 「鄉約齋勸建記」을 지어 향약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고을의 중망 있는 부로들이 고을사람들을 가르칠 적에 조목과 강목을 세워 후진들에게 전하는 것은 향약이 아니면 또한 방법이 없다. 향약을 시행하는 뜻이 아마도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리라. 봄가을로 수업 받고 글을 읽으면 구성원의 신의를 새롭게 다짐하는(講信) 규칙이 있게 되고, 상례와 제례에 예법과 정성을 다하면(慎終追遠) 후덕한 데로 귀의하는 의리를 극진히 하게 되며, 예의로 마음을 서로 통하고 은택으로 고독한 이를 사랑하면 어찌 고을의 좋은 풍속이고 향약의 효과가 아니

27) 安壽祿, 『五峰遺稿』卷5에 실려 있다.

28) 許永 編, 『新增昇平誌并續誌』昇平續誌四, 申錫禧 著, 「鄉約齋勸建記」. “崇禎紀元後四乙卯七月上朔”

겠는가. 향음주례의 뜻은 예를 먼저하고 활쏘기를 뒤에 하며, 예를 귀하게 여기고 활쏘기를 천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공경하고 겸양하여 다투지 않고 효제의 행실이 확립되면 마침내 몸을 바르게 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이르게 되고, 나라가 안정 되면 천하가 안정된다. 『禮記』 「鄉飲酒義」에서 공자가 “향음주례를 보고서 왕도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였는데, 주암고을의 부모들이 이 의미를 터득한 것이로 다.<sup>29)</sup>

향약은 고을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향약을 통해 학문을 강론하며 서로 신의를 다짐하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극진히 하고, 예의와 사랑으로 推己及人하면 고을의 좋은 습속으로 그 효과가 드러난다. 그리하여 敬讓과 孝悌의 행실을 갖추게 되면, 사회와 국가로 확장해 나가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약은 공자가 말한 왕도, 즉 仁政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향약의 실천을 위해 주암지역민은 사재를 출연하여 향약재를 건립하고, 또 講會를 통한 인격도야 및 鄉約을 통한 협동을 추구하며 향리의 善俗을 지향하였다. 그 구심점에 놓인 향약재는 바로 강학의 공간 기능뿐만 아니라, 주암지역민에게 共同善 지향처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암지역의 향약재는 독립된 향약 건물로는 유래가 희귀하며, 현재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유일하다.<sup>30)</sup>

### 3.3. 儒賢의 志趣 추향처

詠歸堂은 조대춘의 6대손 趙泰望의 별장이다. 양벽정에서 보성강을 따라 북쪽으로 3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sup>31)</sup> 현 주암면 궁각리 마전마을의 마전양수장

29) 許永 編,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申錫禧 著, 「鄉約齋冊建記」. “一鄉之父老耆舊, 所以訓迪其鄉人, 立條綱而垂來許者 非約亦無術焉. 設約之義, 其在斯歟. 春絃秋誦, 有講信之規, 慎終追遠, 盡歸厚之義, 禮達情志, 澤仁惇獨, 則庸詎非鄉里之善俗, 而鄉約之成效歟. 鄉飲酒之義, 先禮而後射, 貴禮而賤射. 故作敬讓而不爭, 孝悌之行立, 而遂至於正身而安國, 國安而天下安. 子曰, 觀於鄉, 知王道之易易. 鄉老其有得於斯義歟.”

30) 順天市住岩面史編纂委員會, 『住岩面史』, 순천아름원색, 2009, 392~393쪽 참조. 향약재는 주암면 한곡리 150번지에 있으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다.

31) 奇宇萬 撰, 「詠歸堂重建記」. “昇平山水之區, 有所謂漾碧, 三灘趙公先生亭也. 隨水三里而近, 有

자리이다.<sup>32)</sup> 勉庵 崔益鉉(1833-1906)이 시에서 “오랜 세월 비바람 맞은 집에, 유평의 여운은 아직도 舞雩를 전하네.”<sup>33)</sup>라고 한 것을 미루어보면, 영귀당은 적어도 1900년을 전후하여 존재해 있었던 듯하다. 영귀당의 명칭은 『論語』 「先進」에 曾點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시를 읊으며 돌아오겠다.[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松沙 奇宇萬(1846-1916)은 「詠歸堂重建記」에서 영귀당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귀당에 오르는 자는 저 산들과 이 보성강 물에서 바람 쐬고 목욕하면서 선생의 시원스레 탁 트여 사욕이 없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증점의 말에 대해 주자는 “천지만물과 더불어 상하로 함께 유행하여 각각 제 곳을 얻는 묘함이 은연중 말 밖에 드러난 것이다.”<sup>35)</sup>라고 하였다. 천지만물과 함께 유행한다는 것은 곧 物我一體와 다르지 않다. 송사가 그리는 보성강 가 영귀정에서 주암의 산수를 조망하며 사욕 없이 여유작작한 조태망의 모습은 바로 주자의 말과 같다. 이에 참관 趙彥臣(1682-1731)은 「영귀정차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특별한 곳 소요하는 흥겨움은	特地逍遙興
봄바람 쐬는 증점의 무우로다	春風點舞雩
한가한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 있으니	間中眞樂在
어찌 벼슬살이를 하리	如何佩州符 <sup>36)</sup>

詠歸堂, 三灘公肖孫諱泰望字渭叟先生別業.”

32) 順天市住岩面史編纂委員會(2009), 『住岩面史』, 순천아름원색, 399쪽 참조

33) 許永 篇,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崔益鉉 撰, 「詠歸亭次韻」. “百年風雨宅, 遺韻尙傳零. 堂構賢孫在, 不期事如符.”

34) 奇宇萬, 『松沙集』 卷7, 「詠歸堂重建記」. “詠登斯堂者, 風浴乎茲山茲水, 而想像先生胷次灑落無私累.”

35) 朱熹, 『論語集註』 「先進」 第25장 朱子註. “與天地萬物,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36) 許永 篇,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趙彥臣 撰, 「詠歸亭次韻」.



복잡다단한 벼슬길을 걷다 무위의 공간 같은 영귀당에서 잠시 망중환을 즐긴 조연신은 조태망의 생활을 부러워함과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한 회의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곳이 잠시나마 자신에게 眞樂을 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연신이 영귀정을 진락을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며, 그 ‘진락’은 바로 山水之樂과 물아일체의 흥취 맛보기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전하지는 않지만, 당시 영귀당은 대체로 儒家 선현 증점의 志趣를 추향하려는 조연신의 의지가 담긴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蓮塘齋는 1896년 趙性汝가 주암면 한국마을(開洞)에 은거와 학문을 위해 지은 누정이다. 石塘에 蓮을 심어 遊賞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의미로 정자 이름을 ‘연당’으로 하였다.<sup>37)</sup> 일찍이 北宋의 儒賢 周敦頤(1017-1073)는 「愛蓮說」에서 진흙에서 나오지만 물들지 않고(淤泥不染), 향기는 멀리 퍼질수록 더욱 맑고(香遠益清), 곧게 깨끗이 서있다(亭亭淨植)라고 하며 佛家之花로 인식되던 연을 儒家의 君子之花로 변모시켰다. 조성여가 은거지 이름에 연을 거론한 것은 바로 그것의 외형과 내면을 본받아 부끄럼이 없는 君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연을 바라보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위험하다. 공자는 學而思, 즉 배우고 생각하기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이 점을 깨우쳐주고 격려하기 위해 宋秉珣(1839-1912)은 1896년 6월에 지은 「연당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당재를 청소하고 물을 대고서, 심의를 입고 복건을 쓰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책을 마주해 밤으로 침잠하면 마음이 함께 맑아지고 한 점 티끌도 없어 무극옹의 쇠락한 흥음을 거의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현이 되길 바라는 길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성여군이 반드시 여기에 독실하여 진실로 군자가 되기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sup>38)</sup>

37) 許永 篇,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宋秉珣 撰, 「蓮塘齋記」. “玉川趙性汝甫 其君子人乎 一日過余而語曰 卜築於昇平之間洞 有一石塘 種蓮數千朶 寓吾平生游息玩賞之樂 因以蓮塘扁”

38) 許永 篇,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宋秉珣 撰, 「蓮塘齋記」. “掃灌蓮塘之室, 以深衣幅巾, 焚香默坐, 對越方冊, 朝夕沈潛, 則心境俱清, 點塵不着, 無極翁之灑落胸襟, 庶可窺得. 而希賢希聖之道, 亦在斯矣. 願性汝甫, 必慥慥于是, 真無愧爲君子.”

마음을 경건히 하고 학문에 침잠하여 무극옹[周敦頤]의 쇠락한 흥금을 만끽하고, 더 나아가 군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로써 보면 연당재는 비록 화재로 소실되고 없지만, 그곳은 先賢 周敦頤처럼 연꽃을 보며 안팎으로 군자의 자질을 지향한 곳이다. 따라서 영귀정과 연당재 모두 유흥상경의 공간 기능을 기반한 儒賢의 志趣 추향처의 의미를 갖는다.

### 3.4. 仙界 인식처

「仙巖寺重修碑」을 지은 蔡彭胤(1669-1731)은 신선이 바둑을 두던 바위 곁에 先覺國師 道詵(827-898)이 중창한 암자가 仙巖寺라고 하였다. 이런 유래를 반영하듯 선암사에는 昇仙橋·降仙樓·待仙樓 등 신선과 관련한 명칭이 많다. 그리고 순천지역 곳곳에는 竹鶴·舞鶴·仙鶴·蓬萊山 등의 지명도 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순천이 방장산[지리산]과 영주산[한라산] 사이에 위치하여 신선이 遊息하는 곳이라 인식하였다.<sup>39)</sup> 또한 시인들은 작품 속에서 순천을 가리킬 때 仙鄉·仙區·仙界·仙都[玉京]·靈境 등으로 일컬었다. 1544년 읍성 동문 밖 동천 가에 지어진 喚仙亭은 바로 이러한 선향 순천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투영해 시각화한 것이다.<sup>40)</sup>

漾碧亭은 주암면 궁각리 매우마을 보성강 가에 있는 누정으로, 三灘 趙大春이 지었다. 양벽정 아래 강에서 조대춘은 河西 金麟厚(1510-1560), 玉峰 白光勳(1537-1582)과 도의교를 맺고 뱃놀이도 하였다. 조대춘은 ‘양벽’이라 이름 지은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남긴 1수의 「양벽정」 시에서 “양벽을 정자에 쓴 건 물가에 지어서니, 강산의 맑은 기운이 이곳으로 오네.[漾碧書亭近水裁, 江山淑氣此中來.]”<sup>41)</sup>라고 한데서 유추해보면, 푸른 물결 일렁이는 보성강이 내

39) 許永 編, 『新增昇平誌并續誌』新增昇平誌下, 柳夢寅 撰, 「喚仙亭重修記」. “蓋以是府介於山海之間, 素著佳麗之稱. 彼東溟方丈之羣仙, 經過遊息於斯, 混流俗而人不識者何限.”

許永 編, 『新增昇平誌并續誌』新增昇平誌下, 成彝鎬 撰, 「喚仙亭重建上樑文」. “亭以仙名者, 以其山隣方丈, 海接瀛洲, 庶幾朝暮遇神仙於此間歟.”

40) 金炫鎭, 「順天地域 樓亭 題詠詩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15~20쪽 참조.

41) 金東洙 編 「樓亭關係 資料」: 一. 順天·昇州地域, 『湖南文化研究』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6, 77쪽 참조. 趙大春 撰, 「漾碧亭」. “漾碧書亭近水裁, 江山淑氣此中來. 雲霞知在

려다보이고 모후산을 비롯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들의 맑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여긴다.<sup>42)</sup>

당시 도의교를 뚫고 보성강에서 船遊를 즐긴 김인후는 「양벽정」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야 설명할 수 있기에	目歷身經語可裁
전해 듣고 이곳에 시를 짓고자 왔네	傳聞奈此索詩來
지세를 바라보니 강가에 자리했고	曾瞻地勢臨江盡
보지 못한 천연의 단애 펼쳐졌네	未賞天成斷岸開
청학은 반드시 방장산에서 지나가고	青鶴定從方丈過
백구는 해문에서 돌아올 줄 아네	白鷗知自海門廻
어룡굴 아래 물 맑은 곳에서	魚龍窟下粼粼處
목련 배가 이 굽이에서 기다린다 하네	爲報蓮舟待此隈 <sup>43)</sup>

그는 百聞不如一見의 심정으로 찾아와 푸른 물가 단애 펼쳐진 곳에 자리한 양벽정을 보았다. 그리고서 그는 방장산의 청학이 반드시 지나간다고 하여, 그곳이 청학을 타고 방장과 영주를 오가는 신선이 머물만한 곳을 우회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김인후가 주암지역의 지리적 측면을 부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수의 맑은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본 조대춘의 양벽정 공간인식을 반영하여 仙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礪山 宋益勉의 차운시에서도 볼 수 있다.

양벽정의 진원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은	漾碧眞源盡不裁
하늘이 이와 같이 만들어서라네	天形如是所由來
풍광은 전현들이 기술해 놓았고	風烟已備前賢述
서업을 받들고자 이곳을 열었네	緒業將承此地開

千秋久, 花石長垂百世開. 白玉嘉言情益合, 黃河清瑞運重廻. 同舟心事伸何處, 遙望北天徐上隈.”

42) 金炫鎭, 「順天地域 樓亭 題詠詩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160쪽~161쪽 참조.

43) 許永 編,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金麟厚 撰, 「漾碧亭」.(金麟厚, 『河西集』 卷10에는 「春之索和新齋漾碧亭韻」으로 되어 있다.)

승경 속 기암은 허공에 솟았고	景勝奇巖雲半屹
모래톱에 어부 피리 불며 달빛 받으며 오네	沙明魚笛月中迴
봉래와 영주 가깝다고 전하는 사람 있으니	有人傳說蓬羸近
한 번 속세 벗어나 저 산을 오르고 싶네	一脫塵袿上彼隈 <sup>44)</sup>

송익면이 眞源을 언급한 것은 眞을 추구하는 道家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또 봉래와 영주를 언급하며 선계로의 탈속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양벽정에 대한 창건 당시의 선계 인식이 1800년대의 후인들에게서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벽정은 유흥상경의 공간 기능을 기반으로 선계 인식체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선계 인식이 산수 좋은 곳곳마다 없지 않겠지만, 순천읍성 외곽지역인 주암 지역에서의 선계 인식은 읍성 근처 喚仙亭과 마찬가지로 순천의 지역정체성인 仙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4. 결론

순천읍성 외곽에 해당하는 住巖지역은 백제시대 때 遁支縣이라 불리다 757년(신라 경덕왕) 富有縣으로 개명되었고, 1598년 이후 주암으로 일컬어졌다. 자연환경의 경우 五聖山·雲月山·母后山·峨眉山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寶城江과 그 지류인 廣川·謙川 등이 흐른다. 또한 趙氏·鄭氏·柳氏 가문이 이름났는데, 그 중 玉川趙氏 가문은 입향조 趙瑜와 그의 자손들로 인해 忠孝家의 명성을 드날리며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주암지역은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玉川趙氏를 비롯한 鄭氏·柳氏 등의 가문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을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문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주암지역에는 순천지역 私設 누정으로는 최초로 해당하는 15세기 말의 相好亭을 시작으로 1896년에 건립된 蓮塘齋에 이

44) 許永 編, 『新增昇平誌并續誌』 昇平續誌四, 宋益勉 撰, 『溱碧亭』.

르기까지 모두 10개의 누정이 건립되었다. 이는 순천지역 전체에서 읍성 외곽지역으로는 누정이 가장 많다. 현존 누정은 상호정·양벽정·담락재·향약재이다. 이중 상호정·양벽정·담락재는 모두 옥천조씨 문중 누정이다. 유독 조씨 문중의 누정이 현존하게 된 배경은 謙川書院에서 제향 받는 선조가 있는 가문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報本追遠의 도리를 다하고 문중을 결속하는 한 방편으로 여긴 것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 누정의 주인을 개괄해보면 60%가 옥천조씨 가문에 속하고, 또 향약재처럼 趙氏·鄭氏·李氏·許氏 등의 공동인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주암지역이 가문을 중심으로 발전한 특색이 있음을 반증한다.

그래서 주암지역 누정은 유흥상경이나 강학 등의 공간 기능을 기반으로 가문의 명성 계승과 우애 도모를 염원하는 睦族崇祖 의식처, 鄉約을 통한 향리의 善俗을 추구하는 共同善 지향처, 선현처럼 산수지락과 물아일체 및 군자 추구 등의 흥취를 담은 儒賢의 志趣 추향처, 주암의 아름다운 산수를 말미암은 선계 인식처 등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선계 인식처는 小江南과 仙鄉으로 대표되는 순천지역의 정체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 참고문헌

- 金麟厚, 『河西集』, 韓國文集叢刊 제33집, 민족문화추진회, 1989.
- 奇宇萬, 『松沙集』, 韓國文集叢刊 제345집, 한국고전번역원, 2005.
- 安壽祿, 『五峰遺稿』, 韓國歷代文集叢書 제491집, 경인문화사.
-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所 編,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卷之一』, 1986.  
\_\_\_\_\_,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卷之二』, 1986.
- 趙顯範, 『江南樂府』, 1784.
- 許永 篇, 『新增昇平誌并續誌』, 順天鄉校, 1924.
- 順天大南道文化研究所 譯註, 『국역 江南樂府』, 순천문화원, 2005.
- 順天市住岩面史編纂委員會, 『住岩面史』, 순천아름원색, 2009.
- 우응순, 『누정, 선비문화의 산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 陳仁鎬·許槿 역해, 『順天옛詩』, 순천문화원, 2000.
- 진인호·남호현 역해, 『순천樓亭』, 순천문화원, 2007.
- 湖南漢文古典研究室 編, 『湖南樓亭 基礎目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5.
- 姜貞和, 「누정기에 나타난 하동 누정의 공간인식」, 『南冥學研究』 제34집, 경상대학교 경남  
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12.
- 金東洙 編, 「樓亭關係 資料 : 一. 順天·昇州地域」, 『湖南文化研究』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  
문화연구소, 1896.
- 金炫鎭, 「順天地域 樓亭 題詠詩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 鄭靑柱, 「朝鮮後期 全南地域 士族의 樓亭 建立-樓亭의 門閣 機能」, 『湖南文化研究』 제24집,  
1996.

| Abstract |

## Examination of Suncheon Juammyeon Nujeong

Kim, Hyun-jin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uam(住巖) area, which is the outskirts of Suncheon Eupseong, as well as the roles and significance of the Nujeongs in the area. The Juam area has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has been developed by families. Based on these natural geographical factors, there are ten Nujeongs in Juam area including Sanghojeong(相好亭) which is the first Nujeong in Suncheon built by an individual. Among the outskirts of Suncheon Eupseong, the number of Nujeongs is the largest in Juam. Regarding the owners of these Nujeongs, 60% belong to the Okcheon Jo family(玉川趙氏), and some of the Nujeongs such as Hyangakjae(鄉約齋) are owned by multiple owners from Jo·Jeong·Lee·Heo families. These findings corroborate the characteristic of Juam area, represented by the development led by families.

Therefore, the Nujeongs in Juam area have certain roles and significance such as the places for rituals of Moksoksungjo(睦族崇祖) demonstrating the desire for raising the family's reputation, aspiration for the common good in the hown town through Hyangak(鄉約), desire and propensity to become a man of profound Confucianism, enjoying the pleasure of nature like an ancient sage and recognition of Juam as a fairyland based on its beautiful nature. In particular, the place to recognize Juam as a fairyland is aligned with the identity of Suncheon areas, represented as the Sogangnam(小江南) and Sunhyang(仙鄉).

**Key words** : Suncheon(順天), Juam(住巖), Nujeong(樓亭), Moksoksungjo(睦族崇祖), Common good, Okcheon Jo family(玉川趙氏), Sunhyang(仙鄉)

